

THE GILLETTE MAN AND JAPANESE WOMEN



FERDINANDO FREGA

GILLETTE 남자와 일본 여자들

The Art of Attraction · 11

나는 막 로마에 도착했고, 언제나처럼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을 찾았다. 그것은 나의 첫 Gillette 동료에게 바치는 나의 유일한 경의였다. 그는 어디든 그를 따라다니는 열두 명의 팀과 함께 갈릴래아 지역을 맡았던 사람이다. 그가 올린 실적은 어찌나 대단했던지, 2천 년이 지난 지금도 Wall Street조차 그를 상장 목록에 올리지 못한다.

나는 정문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오전 11시였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문장으로 내 주의를 끌었다.

HELP ME, PLEASE?

그 도움 요청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알아챌 만큼의 시간이 흘렀고, 돌아서자 전형적인 아시아인의 생김새를 한 여섯 여자의 눈과 마주쳤다. 곧바로 미소 짓는, 밝고, 아름답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우아한 여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중국 여자들, 아몬드 모양 눈을 한 나폴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WHERE ARE YOU FROM이라고 묻자, 그들은 모두 함께 대답했다. I come from Japan. 해 뜨는 나라의 여인들이자 딸들:

MY JAPAN.

나는 미소 지으며 곧바로 나를 소개한다. 한동안 쓰지 않은 영어의 먼지를 털어 내며. NICE TO MEET YOU, MY NAME IS FREGA. 그러자 그들은 다정하게, 완벽하게 박자를 맞춰, 합창하듯 나를 부르며 대답한다... FREGA SUN.

젠장. 나는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벌써 나를 태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나의 질문이 나온다. 왜 나를 태양이라

고 부르죠? 그들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그들의 SUN은 태양이 아니라 SAN이고, 한 사람을 향한 그들의 가장 정중한 존중의 형식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암호로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가운데로 나서서 SAN이 이탈리아어로 무슨 뜻인지 설명했다. 그것은 우리가 가톨릭 성인들에게 붙이는 말이다. 어머니 교회가 성인으로 선포하고 더 나은 삶으로 건너간 이들에게.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 그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오직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이유 하나로.

예. 모두가 미친 듯이 웃었다.

나는 무엇을 더 하고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다. 아까의 HELP ME PLEASE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나는 특별한 장소 안에 있었고, 세상 무엇을 준다 해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들의 마음속.

가장 나이 많은 여자가 내 팔을 잡고, 계속 미소 지으며, 자기와 다른 이들을 따라오라고 청했다. 우리는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이것이 갈릴래아 출신 내 동료의 또 다른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거리 몇 개, 골목 몇 개를 지나 우리는 로마식 트라토리아에 도착하고, 그들은 나를 점심에 초대한다. 나는 놀라고 감동하지만, 이 모든 일은 단 하나의 이유로 일어난다. 일본 여자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여자들처럼 레이더가 있지만, 그들의 레이더는 사무라이 문화에 의해 다르게 조율되었다. 그 문화에서는 모든 생명보다 앞에 규범을 둔다. 그렇다, 제대로 들은 것이다. 우리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지만, 그 트라토리아 안에서 그들은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WELCOME TO JAPAN.

우리는 완벽하게 둥근 테이블에 앉는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다. 이탈리아 식당에 흔한 테이블 모양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들은 바로 그 이유로 그것을 골랐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내가 몇 살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탈리아 사람인지, 결혼했는지, 아이가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나는 질문으로 대답한다. 일본 경찰은 도둑을 이렇게 심문하나요?

또 한 번 웃음이 터진다. 하지만 그들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고, 묻지 않고 가져가고 싶어 한다. 그들은 세상의 여자들이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인지의 도둑이라고 말한다. 이탈리아에서 그 역할은 우리가 rubacuori, 마음 도둑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돌아가는데, 그들이 늘 전형적인 라틴 러버인 것은 아니다. 그런 이들은 50년대에나 괜찮았다. 지금은 요구르트처럼 유통기한이 지났다.

웃음이 터지지만, 그들이 농담 때문에 웃는 건지, 내 자세 때문에 웃는 건지, 아니면 그저 예의인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자 무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자가, 거의 사과라도 하듯, 그들의 행동을 설명하며 일본 문화를 살짝 엿보게 해 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살면서 드나들었던 집들 가운데 하나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녀는 먼저 그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껍뻍대는 어리석은 거위 여섯 마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미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존중이며, 그저 감정의 특징만은 아니라고.

그들은 자기들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는 데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나는 예순한 살이고, 결혼했고, 아이가 셋이며, 아내와 1993년부터 이어 온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따라 세계 어디서든 약혼할 수 있다고.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기간제 계약이어야 하고, 누구에게도 아이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

나는 미소가 다시 환하게 켜지리라 생각했지만, 마법처럼 미소는 사라지고, 모든 얼굴에 진지한 버전이 찾아온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스스로 묻게 될 정도로.

무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자가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더니, 곧바로 나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탈리아에 온 지 30일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지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마디로 칭찬이었다.

나는 길을 잃는 순간도, 나 자신의 인격과의 갈등도, 대답해야 할 자아도 가져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가 인지적으로 후지산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잘못된 쪽에, 로마의 한 트라토리아 안에.

나의 짧은 생각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가장 어린 여자가 나를 돌아보며 말한다. Mr. Fregu Fuji. 그리고 나는: minchiaaaaa.

나는 그녀의 시선 속에서, 그녀의 눈 속에서 그녀를 찾고, 다정하게 말한다. 귀여운 아가씨, 후지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가 봐야 해요, 시간이 다 됐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나는 테이블 위에 나의 gillettenarrative.com 비(非)명함을 한 사람에게 한 장씩 올려놓는다.

그들은 놀란다. 그 사이트를 안다. 일본 전체가 안다. 그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발견했다. 어쩌면 이제야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한다.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암호들. 나는 아버지에게 일본에 가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 기회가 한 번도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신한다. 여섯 여자는 그 암호를 풀었고, 침묵 속에서 그들의 판결을 내렸다.

나는 떠난다. 그들의 점심값으로 테이블 위에 돈을 조금 놓아두고, 그들 모두가 함께 우는 모습을 본다. 내가 그들 중 누구

와도 약혼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합창하듯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한다.

ciao gillettenarrative

Ferdinando

그는 더는 팔지 않는다. 그는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것을 공짜로 한다. 그를 진정으로 바라봐 주는 여자들을 위해

—

그가 한 번도 무언가를 바친 적 없던 그 여자들을 위해.

세상의 여자들에게 영광을.

한 남자의 성공은 언제나, 오직 그들의 품을 거쳐 왔다.